

SEQUENCE

기 획



이지현 (26)

호텔리어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맞는 고급 향수를 찾고 싶어한다.

> "호텔리어는호텔 의 얼굴이나 마찬가 지인데 아무 향수나 쓸 수 없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수가 없을까? "



지성인 (32)

레스토랑 매니 저 고급이탈리아 레스토랑 을 운영하는 그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을 하고 싶어한다.

" 우리 레스토랑은 항상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를 강조할 수 있는 고급스 러운 느낌의 향수가 필요 해. "



지성윤 (29)

제약회사 영업직 원

글로벌 스케일의 제약 회사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그는 평소에 온갖 미팅 등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 해 자신을 꾸며줄 향수를 찾고 있다.

"영업사원은 회사의 얼굴 로써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고 다니는데 아무렇게나 다 닐 수 없어.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향수는 없 을까? " R S C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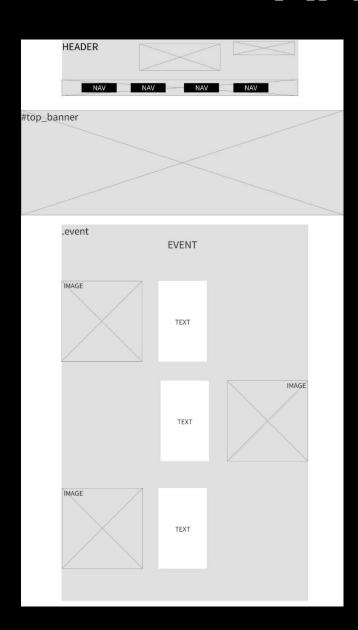
POINT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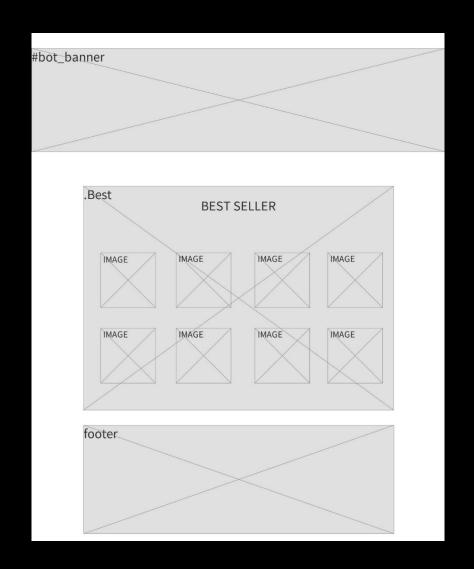
기존 샤넬 브랜드의 캐릭터 컬러인 블랙 & 화이트 컨셉을 살려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기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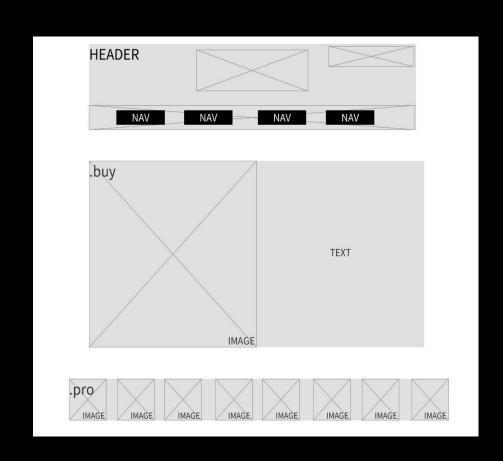
MAIN PAGE





SUB PAGE

기 획



HEADER		
NAV	NAV NA	NAV
buy	IMAGE	TEXT
Pro IMAGE IM		IMAĞE IMAĞE IMAĞE
.buy	IMAĞE	ТЕХТ
.buy		IMAGE
.buy	IMAĞE	ТЕХТ
footer		

화면구형

MAIN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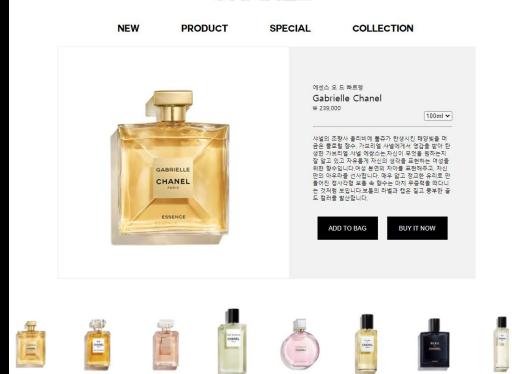




SUB PAGE

1957

CHANEL COLLECTION NEW **PRODUCT** SPECIAL 에센스 오 드 빠르펭 Gabrielle Chanel ₩ 239,000 100ml **▽** 샤넬의 조향사 올리비에 뽈쥬가 탄생시킨 태양빛을 머 금은 물로털 향수. 가브리엘 샤넬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 생한 가브리엘 샤넬 에쌍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성을 위한 향수입니다.여성 본연의 자아를 표현해주고, 자신 GABRIELLE 만의 아우라를 선사합니다. 매우 얇고 정교한 유리로 만 CHANEL 들어진 정사각형 보통 속 향수는 마치 무중력을 떠다니 는 것처럼 보입니다.보틀의 라벨과 캡은 질고 풍부한 골 도 컬러를 발산합니다.



Paris-Edimbourg



가보지할 사업 여성으는 역한기를 포한한 용면한 함을 선생합니다. 아무리에고 살림한 가스는 생활한 남자는 고일 함이 적대한 일임함함 선생리로 전략하는 조건의 물론을 그리고 부모들을 보다는 그리스 목욕로드를 포함한 4가지를 생물이가 아무리에 살려 지난 설문은 물론 인사기를 물론을 하나다. 경우 지난 설문은 물론 인사기를 물론을 하나다. 생각 교본 국목을 받았다며 대목적인 그라스 목욕로드기 생각 교본 국목을 받았다며 기본자를 받는 표근한 만들은 선생합니다.





아트 오브 퍼퓨밍



(SUB).PRO

상품 이미지 클릭 시에 각 상품에 대한 구매창과 상세 페이지로 변경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Gabrielle Chanel N°5 CoCo Mademosielle Paris-Edimbourg Chance Eau Tendre Le lion Bled De Chanel 1957







(SUB).PRO

화 면 구 형

```
$(function(){
   $(".ga").click(function(){
       $(".buy_ga").show();
       $(".buy_no5").hide();
       $(".buy_made").hide();
       $(".buy_ed2").hide();
       $(".buy_chan").hide();
       $(".buy_lion").hide();
       $(".buy_bled").hide();
       $(".buy_in").hide();
       $(".ga_detail").show();
       $(".no5_detail").hide();
       $(".mademosielle_detail").hide();
       $(".edimbourg_detail").hide();
       $(".chance_detail").hide();
       $(".lelion_detail").hide();
       $(".bled_detail").hide();
       $(".in_detail").hide();
```

```
$(".no_5a").click(function(){
   $(".buy_ga").hide();
   $(".buy no5").show();
   $(".buy_made").hide();
   $(".buy_ed2").hide();
   $(".buy_chan").hide();
   $(".buy lion").hide();
   $(".buy_bled").hide();
   $(".buy_in").hide();
   $(".ga_detail").hide();
   $(".no5_detail").show();
   $(".mademosielle detail").hide();
   $(".edimbourg_detail").hide();
   $(".chance detail").hide();
   $(".lelion_detail").hide();
   $(".bled detail").hide();
   $(".in_detail").hide();
```

```
$(".buy_ga").hide();
$(".buy_no5").hide();
$(".buy made").show();
$(".buy_ed2").hide();
$(".buy_chan").hide();
$(".buy_lion").hide();
$(".buy_bled").hide();
$(".buy_in").hide();
$(".ga_detail").hide();
$(".no5 detail").hide();
$(".mademosielle_detail").show();
$(".edimbourg_detail").hide();
$(".chance_detail").hide();
$(".lelion_detail").hide();
$(".bled_detail").hide();
$(".in_detail").hide();
```

\$(".mademo").click(function(){

```
$(".edi").click(function(){
  $(".buy_ga").hide();
  $(".buy no5").hide();
  $(".buy_made").hide();
  $(".buy_ed2").show();
  $(".buy_chan").hide();
  $(".buy lion").hide();
  $(".buy bled").hide();
  $(".buy_in").hide();
  $(".ga_detail").hide();
  $(".no5 detail").hide();
  $(".mademosielle detail").hide();
  $(".edimbourg detail").show();
  $(".chance detail").hide();
  $(".lelion_detail").hide();
  $(".bled_detail").hide();
  $(".in_detail").hide();
```

```
(".chance").click(function(){
  $(".buy_ga").hide();
 $(".buy_no5").hide();
 $(".buy_made").hide();
 $(".buy_ed2").hide();
 $(".buy chan").show();
 $(".buy_lion").hide();
 $(".buy_bled").hide();
 $(".buy_in").hide();
 $(".ga_detail").hide();
 $(".no5_detail").hide();
 $(".mademosielle detail").hide();
 $(".edimbourg_detail").hide();
 $(".chance detail").show();
 $(".lelion detail").hide();
 $(".bled_detail").hide();
 $(".in detail").hide();
```

```
$(".lelion").click(function(){
   $(".buy ga").hide();
   $(".buy no5").hide();
   $(".buy made").hide();
   $(".buy_ed2").hide();
   $(".buy_chan").hide();
   $(".buy_lion").show();
   $(".buy_bled").hide();
   $(".buy_in").hide();
   $(".ga_detail").hide();
   $(".no5_detail").hide();
   $(".mademosielle_detail").hide();
   $(".edimbourg_detail").hide();
   $(".chance_detail").hide();
   $(".lelion detail").show();
   $(".bled_detail").hide();
   $(".in_detail").hide();
```

```
$(".bledde").click(function(){
   $(".buy_ga").hide();
   $(".buy_no5").hide();
   $(".buy made").hide();
   $(".buy ed2").hide();
   $(".buy chan").hide();
   $(".buy_lion").hide();
   $(".buy_bled").show();
   $(".buy_in").hide();
   $(".ga detail").hide();
   $(".no5 detail").hide();
   $(".mademosielle_detail").hide();
   $(".edimbourg_detail").hide();
   $(".chance detail").hide();
   $(".lelion detail").hide();
   $(".bled_detail").show();
   $(".in_detail").hide();
```

```
$(".in").click(function(){
   $(".buy_ga").hide();
   $(".buy no5").hide();
   $(".buy_made").hide();
   $(".buy ed2").hide();
   $(".buy_chan").hide();
   $(".buy_lion").hide();
   $(".buy bled").hide();
   $(".buy_in").show();
   $(".ga detail").hide();
   $(".no5_detail").hide();
   $(".mademosielle detail").hide();
   $(".edimbourg detail").hide();
   $(".chance detail").hide();
   $(".lelion_detail").hide();
   $(".bled_detail").hide();
   $(".in_detail").show();
```

COMMON

화면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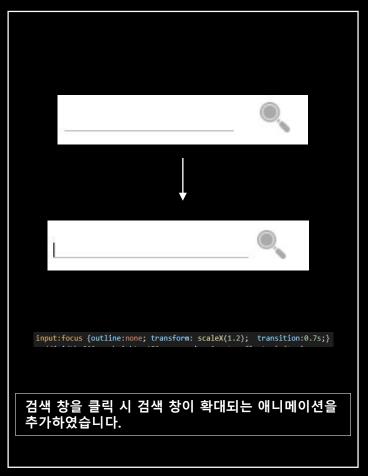
NEW PRODUCT SPECIAL COLLECTION NEW PRODUCT SPECIAL COLLECTION ADD TO BAG **BUY IT NOW** ADD TO BAG **BUY IT NOW** 문의하기 문의하기 고객 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를 주실 경우 고객 센터로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를 주실 경우 상담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 뷰티 080-332-2700 향수 & 뷰티 080-332-2700 이메일 이메일

nav ul li a:hover{[color: ■#aaa; cursor: pointer;]}

button:hover{background: ■#fff; color: □#000;}

.common_detail a:hover{color: □#000;}

각 부분에 마우스 오버 시 이펙트가 변경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제작 해 본 후기

처음으로 직접 내 손으로 쇼핑몰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보았다. 분명 처음에는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었기에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막막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앞서기도 했지만, 막상 제작을 시작하니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지만 하나씩 머리에 되새겨지며 이 부분엔 이런걸 적용해보고 싶다. 라던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기능을 적용해보고 싶다.라며 머리 속에서만 되뇌이던 것들을 그냥 내키는 대로 코드를 짜보기도 하고 그렇게도 안되면 직접 하나씩 찾아보면서 조금씩 수정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 페이지를 완성했다. 머리 속으로 생각만 하던 기능들을 미약하고 부족하게나마 직접 구현했다는 것에 뿌듯했고,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코딩을 재미있게 해줬던 것 같다. 분명 허술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적은 지식으로, 적은 소스들로, 적은 경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 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